

[기획연재 8] 이스라엘 회복과 재림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의미

김해리 / 1994

이스라엘의 국가적 존립과 부르심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잘 드러내 보이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능동적이며 아브람의 역할은 단지 수동적이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며, 전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나라일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은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즉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세우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연단시키고 축복하셔서 전세계에 축복이 되게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한 국가만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적인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축복을 건네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부패와 절망적인 이 세상이 제사장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위에 지도자를 선정하여서 제사장 사역은 행하게 하셨으며 또한 한 제사장 국가를 선택하여서 모든 열방을 위하여 사역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사역은 열방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열방들

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국가이며 구
속사 가운데 갖는 특별한 의미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